

금강프린텍
기자간담회

고모리 4/6반절인쇄기 도입

“품질이 생명” G7마스터 인증도 획득



고모리의 최신형 4/6반절 4색도기(LS-432)를 도입한 금강프린텍(대표 이광제)은 지난 4월 14일 호텔PJ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금강프린텍으로 자리를 옮겨 가동식을 가졌다. 특히 금강프린텍은 신형 인쇄기를 도입하면서 미국 IDAlliance로부터 ‘G7 MASTER’ 인증을 함께 취득했다. G7 MASTER란 ISO12647-2에 기초한 인쇄품질인증제도로서 일진PMS가 보유한 G7 전문가가 금강프린텍 공장 내 품질표준화, 기계표준화에 관한 지도가 이뤄졌으며, 최근 미국 IDAlliance사로부터 G7 MASTER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금강프린텍 가동식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및 고모리 본사 수출부장인 쿠보테라(Kubotera)씨와 한국총대리점인 일진PMS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용구 금강프린텍 이사는 “품질만이 인쇄업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G7인증을 통해 금강프린텍의 인쇄품질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높여 클라이언트의 신뢰와 거래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FSC 자격취득 및 소이잉크를 위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 금강프린텍은 인쇄기 도입과 함께 G7마스터 인증도 획득했다 2-4. 금강프린텍 가동식 모습
5. 금강프린텍 가동식. 왼쪽부터 일진PMS 이재수 부사장, 금강프린텍 박용구 이사, 김남수 인협회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강프린텍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인쇄업계 전체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프린텍의 고모리 최신형 인쇄기도입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모리 최신형 LS-32

금강프린텍이 도입한 고모리 최신형 LS-32 기종은 과거 20년간 고모리의 베스트셀러 기종이었던 ‘리스론’ 기종의 과거 가동 이력과 개선방향을 집대성하여 차세대기종으로서 개량하여 개발된 LS기종이다. 전자동 판교환장치, 30매 이내 손지최소화 시스템(KHS), 자동세척장치와 잉크롤러냉각장치, 디지털식 파우더 스프레이장치 등 급지부에서 배지부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동화하여 원재료비 절감, 생산효율 향상, 작업부하절감 및 최고급 상업인쇄품질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동화 및 손지절감시스템(KHS)을 통해 최단 시간 내 작업준비, 작업 전환이 가능해 인쇄업계의 다품종, 소ロット화, 단납기요구 추세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다.

또한 KHS-AI시스템은 ‘자기학습기능’을 갖추어 각 고객의 공장 환경, 기계 상태의 변화에 맞게 자동추종하여 기계도입 초기에나 6개월 뒤나 1년 뒤에도 균일한 인쇄품질을 달성하고 있다. LS-32 최신기종은 소형기종이면서도 종래 리스론에 비해 확대된 최대용지사이즈 (610×820mm)로 대응가능한 용지범위도 넓은 편이다. 또한 최고 시간당 16,000회전에 달하는 초고속기계로서 고 품질 뿐 아니라 속도의 경쟁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한편 필요시 옵션으로서 패키지(UV니스, 수성니스, 드라이어를 이용한 판지인쇄, PP, PET인쇄 등) 사양도 추가부착이 가능해 다양한 기계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LS-32는 유일무이하게 무알콜인쇄가 가능한 기종이며, 알코올을 사용하지더라도 타사대비 현저히 낮은 양의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대한 영향이 적어 공장 내 작업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진PMS, 사전서비스 개념의 서비스정책 시행

한편 일진PMS는 ‘OMEGA(무한) 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내 서비스에 있어서도 종래의 애프터서비스(사후서비스) 개념을 뛰어넘어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 개념의 서비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인쇄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시 기존에는 수리로 많은 시간 및 비용손실, 납품지연 등이 발생했던 기존 대응방식에서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계획을 세워서’ 체크 리스트에 의거하여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개소를 미리 수리함으로써 종래와 같은 불편과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개념과 대응방식이다.

고모리와 일진PMS는 몇 년 전부터 이 서비스개념의 확산과 적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 오퍼레이터들을 단체로 초대하여 1박2일 국내기술연수와 워크숍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오고 있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